

# 또 성공할까... 5월 X의 베일이 벗겨진다



엠넷 아이돌 오디션 예능 방송 전부터 화제성 입증 브랜드화로 흥행 보장 'TOI·워너원·아이즈원' 국가대표급 아이돌 배출



'프로듀스 X 101' 타이틀곡 무대.

오는 5월 돌아올 엠넷 아이돌 오디션 예능 '프로듀스 X 101'은 2017년 여름을 달군 '프로듀스 101 시즌2'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방송 한 달 전부터 참가 연습생들에 대한 관심이 넘치고,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이미 브랜드화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일단 흥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파급력 정도에 관심이 쏠린다.

◇ 방송 한 달 전부터 조회 수 632만... 센터 후보군도 '솔솔'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사전 공개된 이번 시즌 타이틀곡 '지마' 무대 영상 조회 수는 전날 기준 유튜브에서 581만회, 네이버TV에서 51만회를 기록 중이다.

시즌2 방영 당시에는 유튜브 집계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타이틀곡 '나이나' 무대를 공개한 지 며칠 만에 네이버TV에서 100만회를 기록한 것을 고려한다면 낮은 성과는 아니다. 엠넷 관계자 역시 30일 "조회 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 관심 정도가 낮은 편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데뷔를 접질 만한 주요 연습생 후보도 벌써 온라인에서 거론된다.

'지마'의 센터를 차지한 DSP미디어 소속 송승표는 무대 공개 직후 화제가 됐

며, 시즌2에 출연한 김동찬 등이 속한 위엔터テイン먼트의 김요한 영상도 조회 수가 눈에 띄게 높다.

그룹 업텐션으로 이미 한 차례 데뷔한 '중고 신인' 김우석과, YG엔터テイン먼트 출신으로 'YG보석함'에도 출연했지만 이번에는 개인 연습생 신분으로 문을 두드린 강석화, 그리고 최초로 YG 소속 참가 연습생이 된 중국인 왕군호도 화제몰이 중이다. 물론 JTBC 드라마 'SKY캐슬'에서 수한 역으로 눈도장을 찍은 배우 이유진의 참가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연습생 연령 분포도 다양하다. 15세부터 26세까지 있어 시즌2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시즌2도 서른에 가까웠던 박성우부터 14세(방송 당시) 이우진까지 다양한 나이의 연습생이 참가해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여성 팬들을 확보했다.

또 101명 연습생 중 10명 정도는 소속사가 없는 개인 연습생으로, 시즌2의 김재환 같은 성공사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 '내가 카운스타' 인식 보편화...가요 시장 판도에도 영향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가요계에 확실히 새로운 문화를 불렀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가요시장에 끼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며 "예전에는 공룡기업(CJ ENM)이 상권을 죽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오히려 K팝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일조했다"라며 "또 대기업의 기획력과 마케팅 등 자본 투입으로 앨범 수준도 상승했고 시장 지면도 확대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팬덤 문화도 변화시켰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대중이 아티스트를 스스로 만든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내가 평가하고, 지적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게 프로그램 시리즈를 통해 보편화한 게 특기할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도 하지 않은 오디션 스타를 높은 등수에 올리기에 팬들이 돈을 모아 대중의 투표를 독려하는 옥의 광고를 하는 등 새로운 현상이 생겨났다.

한편, 작전 시즌인 '프로듀스 48'도 일본의 AKB48 측과 협업해 프로그램 변화를 꾀하며 눈길을 끌었다. 시즌2만큼의 폭발력은 없었지만 그에서 탄생한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이 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에 의해 '검증된' 스타들을 데뷔시킨다는 점은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 '성공 보장 브랜드' vs '시즌2만큼 폭

발력 있을지'

어느덧 네 번째 시즌에 접어든 '프듀X'가 화제성을 보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지만 시즌2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린다.

한 음반 홍보사 관계자는 "시즌이 누적되면서 지속적인 성공사례가 쌓여오고, 프로그램 자체가 브랜드화해 방송과 제작물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형성돼 있다"라며 "이번 시즌이 잘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프로젝트 그룹의 계약 기간도 단축할동 2년 반, 개별활동 포함 2년 반, 총 5년으로 늘어난 점도 팬덤을 더 공고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이 관계자는 "계약 기간 단축은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기 때문에 시즌2만큼이나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은하 대중음악평론가 역시 "이번 시즌까지는 잘되지 않을까 싶다. 구성적으로 변화를 꾀한 부분이 눈에 띈다"라며 "또 시즌2와 마찬가지로 남자 연습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나 광고를 통한 응원 등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여성 팬덤을 모으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유재석부터 광희까지... "꼭 돌아갈 것"

## '무한도전' 종영 1주년 회동, 공식 인스타 통해 인사

MBC TV 예능 '무한도전' 멤버들이 종영 1주년을 맞아 모인 후 시청자들을 위해 라이브 방송도 했다.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 조세호, 양세형, 황광희는 지난 31일 늦은 밤 '무한도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인사했다.

유재석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라며 "지난해 3월 31일 종영 인사를 드리면서도 '빠르면 6-7개월 안에는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일이 만우절인데 벌써 1년 하고도 하루가 되는 날이다"고 입을 열었다.

전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원년 멤버 정형돈과 노홍철도 영상 편지를 보냈다. 정형돈은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노홍철은 "한 5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감히 해보겠다"라며 구호 '무한·도전'을 외쳤다.

멤버들의 인사 후 유재석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그럴 거다. 오늘도 '무한도전' 언제 하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물론 모든 분이 '무한도전'을 기다리



'무한도전' 종영 1주년 모임.

는 건 아니겠지만, 기다려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희도 빨리 많은 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기다려주신다면 꼭 돌아가도록 하겠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탄탄한 팬덤을 자랑하며 '국민 예능'으로 불린 김태호 PD의 '무한도전'은 지난 해 3월 31일 방송을 끝으로 13년 만에 시즌 종영하며 휴식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 생존 수형인에게 듣는 4·3사건... EBS '바람의 집' 방영

EBS TV는 2일과 3일 밤 9시 50분 제주 4·3사건 관련 특별기획 다큐드라마 '바람의 집'을 방송한다고 1일 밝혔다.

'바람의 집'은 70년 전 '그 날'의 목격자, 실제 이번 재심 재판에 참여한 생존 수형 노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그중에서도 4·3사건의 각 전개 과정을 경험했던 다섯 노인의 증언을 재구성해 극으로 꾸몄다.

해방 직후 제주의 모습을 그대로 담기 위해 야외촬영은 제주도 현지에서 이뤄졌으며, 내레이션은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이 맡았다.

제작진은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될 대한민국 역사의 아픈 제주 4·3사건을



EBS 다큐드라마 '바람의 집'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을 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노년와이드 1~2부
[7]	50 인강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커라 운명아(재) 40 그녀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벵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국민 여러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재보자(재)	00 12 MBC 뉴스 25 디큐 나는...산다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5 필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채상 위기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비 55 뽀뽀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경성판타지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디큐멘터리 3일(재)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칭	50 원순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리라(재)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력
[8]	30 비커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덕화티비	55 휴먼 디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만의 독립 영웅 (서원준)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국민 여러분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재동 40 특집 디큐 화승 칸데라 1946	10 회사 가기 싫어 스페셜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집 디큐멘터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로보카 폴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6:00 한국기행(재)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디큐 오늘	19:00 미니특공대 X
07:00 너티너츠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EBS 뉴스
07:30 고고디노공공탐험대	<달고기 죽순볶음과 파래 두부무침>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8:00 당동동 유치원1~2	13:40 배워두 남출법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띠띠뽀 띠띠뽀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남아프리카 야생 대탐험 2부 대자연의 유혹>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뽀로	15:15 탈영 구조대	<소쿠리에 담아 볼 2부 승부역, 할머니의 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몬카트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극한직업 스페셜	16:15 잭과 팡	22:45 조식포함 아파트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모두의 모바일 MOMO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봄채소 오보채와 매추리알 피클>	16:45 당동동 유치원1~2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일(음 2월 27일 己巳)
<b>子</b> 36년생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 낸다. 48년생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니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60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나라. 72년생 반드시 실속 있는 관계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니라. 84년생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59, 67	<b>午</b> 42년생 끝까지 가는 것이 낫다. 54년생 눈앞의 이익 때문에 숨겨진 화를 간과할 수도 있으니 참으로 조심해야겠다. 66년생 관이해질 수도 있다. 78년생 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줄줄 새고 있으니라. 90년생 당황하지 말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31, 74
<b>丑</b> 37년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49년생 끝까지 절제된 인연을 한다면 시비수를 피해갈 수 있다. 61년생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73년생 비능률적이다. 85년생 주관에 치우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6, 31	<b>未</b> 43년생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5년생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7년생 조심습은 뜻을 이해해야만 풀이 나갈 수 있다. 79년생 낮은 것이 좋은 것이다. 91년생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다. 행운의 숫자 : 75, 49
<b>寅</b> 38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50년생 요건을 구비하는 데는 애로 사항도 보인다. 62년생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면 그만이다. 74년생 빈 곳부터 먼저 채워주는 것이 낫겠다. 86년생 형국이 중도에 급변할 수 있는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26, 16	<b>申</b> 44년생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야의 확보가 절실하다. 56년생 방향을 좌우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다. 68년생 습은 뜻을 이해해야만 풀이 나갈 수 있다. 80년생 핵심 가치를 좇는다면 실리가 따를 것이다. 92년생 유용한 미래를 여는 단초를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03, 38
<b>卯</b> 39년생 직접 찾아가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명쾌하리라. 51년생 반복될 뿐이다. 63년생 가장 건설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75년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자. 87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국면을 이해한다. 행운의 숫자 : 22, 51	<b>酉</b> 45년생 응응의 모리를 살리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57년생 신경을 써라. 69년생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건이 조성되어 가리라. 81년생 막연한 생각에 그친다면 현실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93년생 가다가 잡히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53
<b>辰</b> 40년생 디딤돌이 될 것이다. 52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니라. 64년생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책을 찾게 되리라. 76년생 행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88년생 체면은 거두고 합리적으로 임하여야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4, 27	<b>戌</b> 34년생 격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46년생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 58년생 당위성이 없는 냉정하게 살펴볼 일이다. 70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82년생 열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행운의 숫자 : 23, 78
<b>巳</b> 41년생 요령이 생기기 되어 있다. 53년생 내키지 않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65년생 관련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77년생 없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 89년생 하찮고 여겨왔던 것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5, 98	<b>亥</b> 35년생 해몽은 것을 버린다면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 47년생 실체로는 까다로운 것이다. 59년생 서로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71년생 순발력이 팔십히 요구된다. 83년생 애매하다면 오히려 흑백은 확실하리라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61, 68